



# KOCHAM ECONOMIC NEWS

제 2012-47 호



2012년 7월 25일(수)

## 미국 경제 동향

- 1) 7월중 제조업 PMI 예상 상회
- 2) 5월중 주택가격 예상 상회
- 3) 미국 주택시장, 수퍼사이클 기대 확산

## 해외 경제 동향

- 1) 스페인, 국가 부도 우려 확산
- 2) 영국,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더블딥 기록

## 산업·시장 동향

- 1) 사프, 대규모 감원 검토
- 2) 「블루골드」 물 가치 투자 각광

## □ 미국 경제 동향

### 1) 7월중 제조업 PMI 예상 상회

- 지난 7월24일(현지시간) 마킷(Markit)은 7월중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가 51.8을 기록, 6월 확정치 52.5와 시장 예상 치 52를 모두 밑돌았다고 발표
  - 이는 2010년 12월 이후 최저를 기록, 다만 제조업 확장, 위축 경계선인 50은 상회
  - 신규주문지수는 7월중 51.9를 기록 지난 6월 53.7 대비 소폭 하락
  - 생산지수가 6월중 53.4에서 7월 52.3으로 하락
  - 고용지수는 52.8에서 52.9로 소폭 상승
- 이는 유럽 부채위기와 중국, 브라질 등 신흥국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미국 수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, 미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

### 2) 5월중 주택가격 예상 상회

- 지난 7월24일(현지시간) 미연방주택금융청(FHFA)은 지난 5월중 주택가격지수가 0.8% 상승했다고 발표
  - 이는 전문가 예상치 0.4% 상승을 상회한 결과로 전년동월비 3.7% 상승
  - 4월 상승세는 0.8%에서 0.7%로 하향 조정
-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주택시장이 지난 2007년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, 저가 주택 재고 부족으로 주택 매매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

### 3) 미국 주택시장, 슈퍼사이클 기대 확산

- 지난 7월23일(현지시간) 골드만삭스는 주택시장의 슈퍼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으며, 이에 미국 신규주택 판매 지표가 앞으로 강한 회복세를 앞두고 있다는 골자의 보고서를 발표

- 지난해 다수의 주택시장 위험이 완화됐고, 미국 주택가격이 3~7년간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자신감을 줬다며 미국 주택건설업종 투자의견을 중립(neutral)에서 투자 매력(attractive)으로 상향 조정

o 골드만삭스는 신규주택 연간 판매량이 미국 고용시장 회복에 힘입어 55만 채에서 60만 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
- 지난 5월중 신규주택 판매량은 연간 환산 36만9천 채를 기록한바 있음
-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고용시장 회복세로 추가 고용 없이도 신규주택 판매가 20만 채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
- 또한 주택가격 상승세로 신규주택 판매와 주택착공이 향후 4년간 연평균 20~30% 증가, 오는 2014년에는 신규주택 판매량 70만 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

o 낙관의 배경은 그림자 재고<sup>1)</sup>의 축소, 미국 정부 정책, 기록적 수준의 대출금리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

- 그림자 재고의 축소에 따라 그간 주택가격에 미치는 악영향이 약화됨
- 미국 정부 정책은 수요보다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덕분에 지난 2년간 매물 공급량이 10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감소
  - 애리조나, 캘리포니아, 플로리다, 네바다, 텍사스 등에서 그림자 재고는 15% 감소
- 또한 금년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졌고, 시장에 매물로 나온 기존 주택도 감소
- 한편 미국 주택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 건설도 지난 6월중 단독주택 건설이 전월비 4.7% 증가하는 등 최근 2년래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임

1) 그림자 재고(Shadow Inventory)는 주택담보대출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채권자에게 압류된 주택 등 향후 주택시장에 잠재적 매물이 될 주택을 뜻함

## □ 해외 경제 동향

### 1) 스페인, 국가 부도 우려 확산

- 지난 7월24일(현지시간) 스페인 국채시장에서는 오전 한 때 5년물 국채 금리가 7.56%까지 상승하며, 7% 중반대인 10년물 금리를 소폭 웃도는 등 유로존 출범이후 처음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스페인의 국가 부도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고조
  - 수개월전만해도 스페인의 5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는 1.5%p 가량 격차를 보였으나, 최근 들어 스페인의 국가도산 우려로 장단기 금리가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단기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5년물과 10년물간 역전현상까지 발생
- 통상 10년물 국채 금리가 7%선을 넘어서면 국가 채무불이행 및 전면적 구제금융의 전조로 여겨짐
  - 앞서 그리스, 아일랜드, 포르투갈 등 유로존 국가들도 10년물 금리가 7%선에 진입한 후 20일 전후로 구제금융을 신청한 바 있음
  - 특히 지난 2월중 구제금융을 받은 포르투갈의 경우처럼 국가부도 직전 대부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바 있음
    - 이는 위기가 고조되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리스크가 큰 단기물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
- 한편 스페인은 최근 은행권 위기가 불거지자 유로존 당국으로부터 최대 1천억 유로의 은행 구제금융 지원을 약속받은바 있으나, 스페인 은행권 지원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스페인 금융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 요동친바 있음
  - 특히 지난 주말 발렌시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자금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데 이어 6개 지방정부가 추가로 자금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인해 스페인이 국가 도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

## 2) 영국,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더블딥 기록

- 지난 7월25일(현지시간) 영국 통계청(ONS)은 영국의 지난 2/4 분기 국내총생산(GDP)이 전분기 대비 0.7%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
  - 영국 경제가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기록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4/4분기와 금년 1/4분기 연속 -0.3% 성장률을 기록,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침체에 돌입한 바 있음
- 영국 통계청은 긴축재정에 따른 건설 부문 생산이 위축돼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다고 분석
  - 지난 2/4분기 건설 부문 생산은 공공주택 건설과 인프라 투자 감소로 전분기대비 5.2% 하락했으며, 제조업 생산은 1.3% 감소한 바 있음
-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금년 성장률 목표를 0.8%로 잡고 있어 하반기에는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 부양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

## □ 산업·시장 동향

### 1) 샤프, 대규모 감원 검토

- 지난 7월24일(현지시간)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전자업체 샤프가 실적 악화로 수천 명에 달하는 인원을 구조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
  - 샤프는 LCD와 태양광 패널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지난 2/4분기 순손실 12억8천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
- 샤프는 지난해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감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, 실적 부진이 심각해지자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짐

## 2) 「블루 골드」 물 가치 투자 각광

- 지난 7월24일(현지시간) 마켓워치 칼럼니스트인 폴 B 파렐은 투자자들에게 물이 21세기의 「새황금」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의 컬럼 기재
  - 그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, 이 역시 물 값 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
    - 일례로 싱가포르를 마시는 물의 20%를 하수를 처리해 제공하고 있고, 미국에서도 담수시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, 비용이 만만치 않아 물 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
- 그는 물에 투자하려면 프랑스 수질관리업체 베올리아인바이런먼트와 에너지기업 GDF수에즈를 주목하라고 조언
  - 또한 코카콜라와 펩시, 프랑스 식품업체 다농의 주가 흐름도 주목할 것을 조언
- 또한 물 관련 상장지수펀드(ETF)도 투자대상으로 삼을 만하지만, 자산 규모가 베올리아나 GDF 수에즈에 비해 훨씬 작아 투자 재미가 덜할 것이라고 지적
- 한편 투자자들이 물 값 상승에 베팅하는 것은 무엇보다 급증하고 있는 세계 인구 때문에 물의 희소가치가 갈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
  - 유엔은 지난해 70억 명을 돌파한 세계 인구가 매년 7,500만명씩 증가하여 오는 2050년 100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
  - 반면 세계물위원회(WWC)는 현재 전 세계에서 11억 명이 마실 물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바 있음
  - 미 경제전문지 포천은 오는 2030년 지역별 물 수요가 북미는 지난 2005년 대비 43%, 남미 95%, 유럽 50%, 인도 100%, 중국은 47%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, 동 기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물 수요는 무려 283%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바 있음